

네 가지의 믿음에 대해 설한 부처님은 이어서 5품이라고 하는, 부처님 멸도 후의 다섯 가지 실천 사항과 그 공덕에 대해 설한 다.

이 5품이란 초수회, 독송, 설법, 곁행6도, 정행6도의 다섯 가지 실천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의 실천은 부처님 멸도 후의 수행이므로 멸후의 5품이라 한다.

1) 초수회(初隨喜): "여래가 멸도한 후 만일이 가르침을 듣고서 비방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수희심, 隨喜心)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참다운 신앙을 얻은 사람의 경지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이 <법화경>을 듣고 그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용하며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초수회'이다. 경에서 설하는 것을 듣고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확실히 그렇다"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를 '깊이 믿고 이해하는 경지'라고 한 것이다. <법화경> 실천의 첫 출발은, <법화경>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2) 독송(讀誦): "하물며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간직하는 사람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이런 사람은 곧 여래를 머리 위에 항상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 <법화경>을 이해하고 확신한다면, 경전을 읽고 외우어 가르침을 뚜렷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공덕은 탑과 절을 건립하고 승상을 지어 승단에 공양함과 같기 때문에 현실로 탑을 세우거나 승상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설하는 것이다.

3) 설법(說法): "만일 여래가 멸도한 후에 이 경전을 듣고 받아들여 간직하며 혹은 쓰고 혹은 남을 시켜 쓰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이 사람은 승방을 세우되, ...이로써 지금 나와 비구승을 공양함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여래가 멸도한 후에 만일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읽고 외우

자신의 실천 수행임과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 실천 수행의 공덕은 앞의 '독송' 공덕보다 더욱 커서 서른 두 개의 전당에 높이가 8다라수가 되는 갖가지 시설을 완전히 갖춘 절을 짓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한다.

4) 곁행6도(徧行六度): 6도란 6바라밀을

경>을 잠깐만이라도 믿고 이해하면 5바라밀을 실천한 것보다 그 공덕이 크지만 받아 바라밀은 제외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받아바라밀을 더한 6바라밀의 수행을 말한다.

5) 정행6도(正行六度): '곁행6도'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5종 법사인 수지·독·송·해설·서사를 실천하면서 6바라밀의 수행을 중심으로 실천·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받아들여 깊이 간직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설하며 자기도 쓰고 남에게도 쓰도록 시킬 뿐만 아니라, <법화경>의 깊은 뜻을 바르게 해설하고 또 자신의 몸을 청정하게 유지하며 계율을 지켜 온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곁행하여 잘 참고 상대 지 않으며 뜻이 굳건해 항상 좌선을 즐겨 여러 가지 깊은 정진 불일의 경지에 도달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배워 두뇌가 명석하여 지혜를 구하되 어려운 질문에도 바르게 대답하리라." 이와 같이 <법화경>을 실천·정진하는 사람은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사람이라고 설한다.

이상이 멸후의 5품인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 부처님의 뒤를 이어 <법화경>을 수지하고 널리 펴는 실천 수행과 그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공덕을 바탕으로 하여 설한 것이다.

여기까지 말한 4선과 5품은 <법화경>의 실천이론을 실천함으로써 중국의 천태에서는 이것을 수행의 단계에 10선·10주·10행·10회향·10지·등각·요각의 52위 설을 채용하고 있다.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⑩ 분별공덕품 제17

다섯가지 실천사항



기쁜 마음으로 '법화경' 수지·전법 부처님 멸도 후 '깨달음 이루는 길'

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고 혹은 자신이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해 이 경전에 공양하면 탑과 절을 세우거나 승방을 지어 스님들에게 공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경전을 독송하고 그것을 마음 속에 뚜렷이 간직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시켜 쓰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해야 한다. 이것이 '설법'이며

말하며 6바라밀의 수행을 겸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하물며 이 가르침을 간직하고 겸하여 보시·지계·인욕·정진·일심·지혜를 행한다면, 그 공덕은 가장 높아 무량 무변할 것이다."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보살 수행으로서 6바라밀을 실천하는 것, 즉 앞의 네 가지 믿음 가운데 '일념신해'에서는 <법화

여러 곳에서, '뒤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할을 한다.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뒤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모자라며, 어느 곳을 뒤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 곧 이런 부류의 들어우·도깨비를 믿고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결박하고는, '이치와 행동이 서로 응하고 3업을 다스려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불살의 가람비처럼 많다. 옛 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약 사람이 도를 뒤는다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가지 사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나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줄 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기 이전의 어둠 그대라고 곧 밝음이다'라고 한다. 그 까닭에 옛 사람은, '평상시의 마음이 바로 도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러한 관심과 노력은 어떤 부자연스런 상황을 조작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왜곡되어 있었던 정신구조를 자연스럽게 바로잡는 관심과 노력이어야 한다. 공부를 한다는 행위에서 관심과 노력은 기본적으로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발심에서

상 깨어 있지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변화하는 의식(意識)이라는 현상에 눈길을 빼앗겨서 본성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치 눈썹이 보이는 대상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그러한 대상을 보게 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없는 것과 같다. 눈이 보이는 대상 위에서 자신을 찾을 수

'한 물건'도 없으니, 평상시 마음이 바로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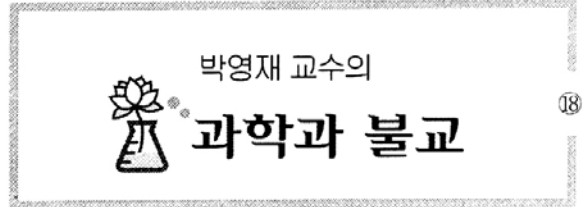
이미 의도적인 면이 있고, 공부를 하는 노력에 이미 조작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조작해 가지만 해서는 타고난 본성을 깨닫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깨달음이란 본성을 일깨워서 본성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각(自覺)하도록 하는 일이다. 공부는 유행행(有爲行)이 아니라 무위행(無爲行)에 의해서만 완성된다. 본성 스스로가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사실은 본성은 항

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성이 나타나는 의식 위에서 자신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현묘한 이치나 그럴듯한 문자나 황홀한 느낌이나 뛰어난 육체적 능력 등을 추구하는 것을 본성을 찾는 공부라고 여긴다면, 그야말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의식의 조작품으로서 본성 스스로가 비추어내면서도 또 스스로 꼬달려가는 신기루 같은 허깨비

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이 바깥의 사물을 볼 수 있을 뿐 스스로를 보지는 못하는 것처럼, 본성도의 의식을 알 수 있을 뿐 스스로를 알지는 못하는 것. 그렇긴 하지만 눈이 스스로를 깨닫는 길이 바깥의 사물을 보는 행위를 통하는 것뿐인 것처럼, 본성도 스스로를 깨닫는 길의 의식이라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는 것뿐이다.

눈은 대상을 바라보되 보이는 대상만을 보고 대상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고 있는 자신 즉 본다는 작용 그 자체를 자각할 때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가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본성도 의식의 세계를 경험하되 경험되는 세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변함 없이 바탕이 되는 작용 그 자체가 되어서 다만 그렇게 작용할 뿐일 때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김태환·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환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 매주 수·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정화) http://www.mindfree.net/



보존과학과 불심회복

원단과학 분야 가운데 엑스선, 적외선 및 현미경 등을 이용해 문화재의 손상상태를 분석하고 화학 및 고분자화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담당하는 '보존과학'이란 분야가 있다. 이 분야 종사자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것을 보지 않으며, 구도자처럼 마음을 맑게 유지하여 보존처리에 몰두한다고 한다. 사실 이런 분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고려인들의 순수한 불심이 담긴 수월관음도가 복원될 수 있었다.

을 향한 마음'은 깊이의 문제이지 불상의 크기와 관련지을 일은 결코 아니다. 한편 요새 대선을 앞둔 정치계는 이상한 '불심'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신문 홈페이지에서 '불심'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본래의 '불심'에 관한 기사는 별로 없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심잡기' 기사만 잔뜩 찾을 수 있다. 지난 일년간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평소에는 가만있다가 큰 행사 때만 되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왕 이런 자리에 정치인들이 참석했다면 정신적인 스승들의 좋은 법문을 가슴깊이 새기고 돌아와,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사심 없이 인내하며 실천면 그만한 것이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 스승들이 해야 할 다음과 같은 좋은 법문들까지 하고 오니 내친 김에 이분들이 아예 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나서는데 불교계를 활성화하는 대안안이 될 지도 모르겠다.

불교계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불심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 그런데 간혹 이상한 방향에서 잃어버린 '불

그들이 하는 말은 '갈등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상상과 일체의 세상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할 것'. '병원에서는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의술로써, 정치인은 투명하고 공



그림·문병성

'부처님 향한 마음'은 형상과 무관 순수한 '불심회복'이 곧 화두 타파

심'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매우 안타까울 때가 있다. 얼마전 법주사에서 대불(大佛) 불사를 하더니 해인사도 43m13층 아파트 높이의 불상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인사 측은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수련원, 영상 포교실 등을 함께 조성해 재가자들의 부족했던 수행 공간을 늘리면서, 신앙의 중심으로서 대불을 조성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해인사는 '이곳에 대불을 조성하면 국운이 열리고 민족이 화합하고 국민이 평안할 것이라는 몇몇 큰스님들의 유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한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기업인은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각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하자' 등이다. 끝으로 '불심'과 관련하여 간화선의 원류인 오조법연(1104년 입적) 선사께서 제창한 <무문관> 36칙의 '노봉달도(路逢達道)' 화두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오조 선사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달도인(達道人) 선의 스승을 만나거든 말이나 침묵으로 대하지 마라. 자! 일러 보아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무분별의 지혜가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순수한 '불심'을 회복(復得)할 때 이 화두의 경계는 비로소 자명하리라!

본래 불상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제자들이 그분을 기리기 위한 일원으로, 2세기 초 인도 서북부 간다라 지방에서 처음 제작된 것으로 '불심(부처님

sjpark@ccs.sogang.ac.kr

Modern Buddhism 8th.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동화사, 건봉사, 만월산 용연사, 법흥사, 청련사, 치악산 구룡사, 원주불교대학, 머구리 회집.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uddhist organizations and temples.